

3/19(토) 삼상 8-12장 동상이몽

이스라엘은 사무엘의 통치 가운데 회복과 안정을 누립니다.

이제 노년의 사무엘이 첫 번째 왕을 소개하는 일만 남은 듯 보입니다(8:1).

그런데 왕정의 첫 걸음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.

이스라엘에 어떻게 왕정이 시작되었는가?

성경은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(8:1-5, 19-20).

하나님은 이스라엘이 <나를>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(8:7).

하나님은 이미 왕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,

왜 왕정에 대해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?

(cf. 창 17:6, 16, 창 35:11, 신 17:14-20).

이는 하나님께서 왕을 주겠다고 하신 의도와

왕을 달라는 사람들의 의도가 충돌했기 때문입니다(삼상 8:6-7, 12장).

하나님은 새 시대, 구원의 <도구>로서 왕을 예비하셨지만,

백성들은 <모든 나라>에서 운영하고 있는 왕정제도를 원했습니다(8:5).

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포기하고

인간 왕이 통치하는 세상 왕국을 선택한 것입니다.

백성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(8:10-18).

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도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셨습니다.

그러나 <왕>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(12:14-15).

<왕정>은 새로운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체제의 변형입니다(12:16).

왕 역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, 규례와 법도대로 통치해야 합니다.

하나님은 왕권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로서 <선지자>를 쓰십니다.

사무엘시대로부터 선지자 사역은 전문화, 제도화되어갑니다(10:5, 10-12, 19장, 22장).

선지자들은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.

킹 메이커(브레이커)의 역할을 할 만큼 영향력을 지니게 됩니다.

(왕상 19:15-16, 왕하 8:13, 마 14:5, 21:26, 막 6:20).

나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?

❶ 나에게 허락하신 소유, 직분, 직업, 관계 등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습니까?

❷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, 하나님의 방법과 규례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?